

# ‘전국 제일 쌀귀리 생산지’ 강진군, 가공식품 개발 나선다



강진군이 쌀귀리 가공식품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는 강진군 쌀귀리를 활용한 중군 된장 제조방법 특허기술을 강진된

장영농조합법인(대표 최향심)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리태 된장을 생산 중인 강진된장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된장 생산

## 쌀귀리 활용 중군된장 제조방법 기술이전

## 귀리국수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집중

기술을 취득하게 됐다.

이 밖에도 군은 국수, 떡, 누룽지, 이우식, 선식 등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국 최고의 쌀귀리 생산지로서 강진군의 경쟁력을 높인다.

2020년 군정 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으로 ‘강진 보리와 귀리를 활용한 수제맥주 개발’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444ha의 면적에서 149농가가 쌀귀리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두보식품과 협약을 맺고 동절기 소득작목으로 계약재배해 전국 식품매장에 강진산 쌀귀리를 가공해 판매 중이다. 특히 강진군에서 쌀귀리를 생산중인 박정용 씨는 중자공급을 위해 조양과 대양 중자판매업 실시권을 취득해

품질 좋은 쌀귀리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귀리의 종류는 크게 겉귀리와 쌀귀리로 구분되는데,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귀리는 100% 쌀귀리이다. 대부분의 수입귀리는 ‘겉귀리’로 별도 도정이 필요하고 거친 식감을 가지지만 ‘쌀귀리’는 별도 도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 식감이 부드럽다.

귀리는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재배해 전국 식품매장에 강진산 쌀귀리를 가공해 판매 중이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탈모 예방, 피부미용에도 좋다.

쌀귀리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 따뜻한 기후를 갖추고 있는 강진군이 쌀귀리 생육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강진군 쌀귀리는 다년간 실험을 거쳐 경험을 축적해 전국 최고의 품질 및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쌀귀리 재배 시범사업과 연구개발로 재배 노후를 축적한 강진군은 전국 최고의 쌀귀리 생산지이다”며 “전국 쌀귀리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강진군에서 쌀귀리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힘써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빠른 옥수수 재배로 ‘농가소득 쟁점’

이달 하순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된 장흥 조기재배 초당옥수수 수확량이 높고 농가소득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기재배 옥수수는 2월 초 포

초기 생육기인 봄철에 저온현상과 강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같은 시기에 심은 노지재배 옥수수에 비해 생육이 빠르고 낱알도 굵다.

300~400원이 더 높은 가격에 도매가가 형성돼 있다.

농업인은 높은 소득을, 소비자는 고품질의 맛 좋은 옥수수를 일찍 맛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육묘기간이 짧고 생육 관리가 수월해 노동력 부담이 적은 것도 농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5곳의 출하처를 확보함에 따라 옥수수의 전 물량이 전국으로 뻗어 나갈 예정이다.

권영식 대표 농가는 “올해는



봄 저온현상과 바람이 많이 불어 많이 걱정했는데 작년보다 상품이 좋고, 특히 초당옥수수는 달고 아삭한 식감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다”며 “유통망도 확보돼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확 빨라 노지 옥수수 비해 300~400원 높은 가격 거래

육묘기간 짧고 생육관리 수월해 노동 부담 덜한 것도 장점

특육묘를 거쳐 3월 초 정식, 4월 중순경까지 부직포 보온으로 재배한다.

15~20일 정도 일찍 수확하는 조기재배 옥수수는 7~8월에 출하되는 노지재배 옥수수보다 개당



## 완도 소식, 군민 SNS 기자단이 전한다

21명 기자단 발대식·워크숍

완도군은 날이 갈수록 SNS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지난 26일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군민의 시선으로 군 소식 알리고 생생하게 전달할 ‘희망완도 군민 SNS 기자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및

기자증이 수여됐으며, 성공적인 SNS 마케팅 전략 등 SNS 활용 교육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앞으로 축제 및 각 읍면 소식, 군 시책 등을 SNS를 통해 알릴 군민 SNS 기자단의 활동은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군민 균형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청정 농수특산물 기획전

내달 2일까지 롯데백 잠실점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진도군은 오는 7월 2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수도권 고객을 대상으로 진도 청정 농수특산물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청정 진도군에서 생산된 김, 미역, 멸치를 비롯 반건조생선, 홍주, 울금 등 50여종의 청정 농수특산물을 특별 판매한다.

특히 진도군수 품질인증 받은 농수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 과정을 축소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진도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특산물 시식, 시음,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특별 판매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진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진도군 농수특산물 홍보와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며 “안정적



인 유통망 확보를 통해 진도 청정 농수특산물이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전환된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춰 진도군 직영 공식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도 운영중에 있다.

청정 진도에서 생산된 제품중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진도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6월말 현재 4억원을 판매해 진도 청정 농수특산물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건다시마 생산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억 지원

완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재고량 과다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마 양식 어가를 위한 해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30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건다시마 생산 어

에 한해 지원한다. 최근 1년 위판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기존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제외된다.

어가 당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어업인은 고정금리 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